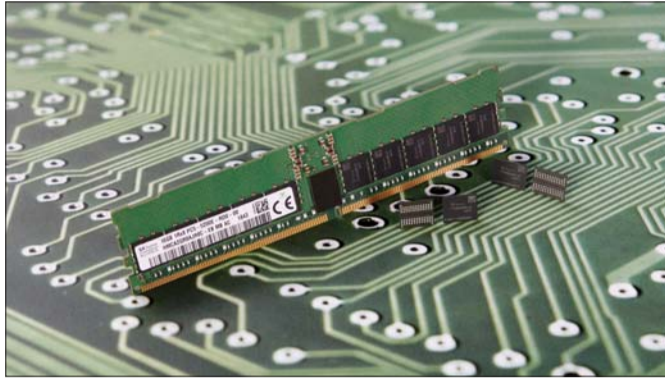


‘이유없는 호황’ 반도체 미스터리, 슈퍼사이클 올까

〈하반기〉

5월 반도체 수출액 81.5억弗
수요확대 대비 업계 투자 붐물
하반기 심각한 불황 우려도



SK하이닉스는 세계최초로 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클린룸 /SK하이닉스 뉴스를

반도체 업계가 하반기 반등 시그널에 주목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보면 ‘슈퍼사이클’까지도 기대되는 상황.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를 무시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등에 따르면 5월 반도체 수출액은 81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SSD도 9억 60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160.2%나 많은 수출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성장을 이어갔다. 누적으로는 지난해 실적 88%를 뛰어넘어 올해 새 기록을 쓸 전망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12억2000만달러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73.0%나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수십프로 상승하며 호실적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그늘이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 수출로 보면 전년과 비교해 반도체 수출액이 중국에서 8.4%, 미국 30.8% 급증하는 등 뚜렷한 개선을 확인시켰다.

수요 확대를 대비한 반도체 업계 투자도 거침없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이어 평택에도 낸드플래시 설비에 8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SK하이닉스

도 기존 투자 계획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반기 호황이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가운데, 실제 소비재들 판매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요만 이어지는 까닭이다.

실제로 5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12억 8000만달러, 휴대폰 수출은 7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1%, 21.5%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요 중 스마트폰 비중이 적지 않은데, 어디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 호황이 단지 업체들의 재고 확충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여기에서 나온다.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업체들이 만약을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났다는 추측이다.

만약 이런 경우 하반기에는 또 다른 반도체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 당장 D

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요 위축이 시작됐고, 재고도 늘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호재는 있다. 하반기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등 신형 콘솔이 계획대로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서버용 DDR5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인텔 CPU 공급 안정과 맞물리면서 서버 업계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도 기대해볼만 하다.

다만, 이같은 호재를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형 콘솔이 성공할 지 알 수 없고, DDR5 출시도 지속 연기되고 있어서 하반기 공급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스마트폰 시장 개선이 관건이지만, 아직은 부정적인 예상에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맞은 건 사실이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고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하반기에는 심각한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 통합설계 플랫폼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 ‘큰 성과’

MPW프로그램 연 3~5회 확대 운영
중소와 협력 제품, 올해말부터 양산
자체서버 구축 대비 시간·비용 절감



삼성전자 임직원이 국내 팹리스 업체 ‘가온칩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SAFE Cloud Design Platform, SAFE-CDP)’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중소 팹리스 업체가 서버 없이도 반도체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 국내 중소 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제품 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MPW(멀티프로젝트 웨이퍼)프로그램을 공정당 연 3~4회로

확대 운영하고, 8인치(200mm)뿐 아니라 12인치(300mm) 웨이퍼로 최첨단 공정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전장, 모바일, 보안 등 다양한 응용처에 최적화된 공정 기술과 설계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팹리스와 디자인하우

스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레이아웃, 설계 방법론·검증 등을 포함한 기술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생태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온 제품은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될 예정이다. 업체들은 2018년부터 진행된 파운드리 생태계 프로그램 ‘SAFE(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리 에코시스템)’에 참가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특히 ‘통합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SAFE-CDP)’에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출시했다.

‘SAFE-CDP’는 삼성전자와 클라우드 HPC(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업체인 리스케일이 함께 구축했으며, 팹리스

고객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칩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상의 설계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동화 설계 SW 업체인 엔시스, 멘토, 케이던스, 시놉시스 SW를 공용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이다.

삼성전자의 ‘SAFE-CDP’는 서버 확장에 대한 고객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칩 설계와 검증 작업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도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국내 팹리스 업체인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의 SAFE-CDP를 활용해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한 결과, 기존 대비 약 30%의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